

# 불황에 '키다리 아저씨'도 줄었다

### 보육원·경로원 등 기부금 감소로 겨울나기 걱정 태산 사회복지모금회 나눔캠페인 시작 "온도담 채워주세요"

치솟는 물가에 어려운 이웃을 향한 '나눔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 고물가 속에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까지 기부활동을 줄이면서 광주지역 보육시설과 복지관 등을 찾는 '키다리 아저씨'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코로나19 위기도 버텼는데, 기부 감소로 올해는 보육시설과 복지관들이 느끼는 체감 한파는 훨씬 크다. 광주시는 광주지역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은 모두 10곳으로 약 400여명의 아이들이 입소해 생활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연말이 다가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종 협회 등 온정을 전하는 후원자들이 물러들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다는 것이 양육시설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다는 '나눔의 의지'는 이어졌지만, 코로나가 끝나가는 올해는 오히려 '기부공백'까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 종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발

길이 끊기고 유례없는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개인 기부활동이 끊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부의 발길이 끊기면서 후원금은 물론 후원 품목마저 줄고 있다. 문제는 추운 겨울 난방비까지 걱정이라는 점이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난방비 전부를 충당하기 어려운데 최근 유튜브가 급등한 상황에서 후원금이 줄어 보육시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육시설 '용진 육아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후원자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만나면서 유대감이 쌓여 한번 온 방문객들이 두번 세번 오곤 했는데, 코로나 이후 방문하지 못하게 되자 느끼는 보람도 적은 것 같아 아쉽다"면서 "올해 연말이 난방비가 인상되면서 기존에 받던 보조금으로는 전부 충당하기 어려워 큰일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보호종료아동과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대한 비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올 겨울 도움이 손길이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반대로 후원금이 줄자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씁쓸함은 커지는 모양새다. '노를담 형제의집' 관계자는 "기부라는 것은 본

인이 필요한 곳에 쓴 뒤 남은 돈을 기부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고물가가 겹치면서 기부금이 20%가량 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줄어드는 후원금에 난방비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프로그램과 공모에서 후원금을 충당하는 곳도 있다. 보육시설 '신애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지자체의 각종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진행비를 아끼고 들어온 후원금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나눔의 손길이 줄어드는 곳은 아동시설뿐 아니라 다른 복지시설도 비슷했다. 특히 겨울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 복지시설의 경우 올 겨울 난방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양지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치솟는 난방비 걱정 때문에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들을 마음놓고 따뜻하게 해드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후원금이 줄어들어 각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나눔 캠페인이 12월 1일부터 시작해 모금액을 달성할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광주·전남 지회는 모두 올해 목표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상향했다. 광주·전남 지회가 내년 1월 31일까지 목표로 하는 '사랑의 온도담 100'은 총 147억6000만원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붕어빵'의 변신은 무죄

### 피자·김치 등 다양...개당 2000원에도 대기만 20분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이 진화했다. 수년 전까지 5개에 1000원 수준으로 값싼 간식의 대표주자였지만, 최근에는 '피자', '크림치즈' 등 다양한 콘셉트를 가미한 고급 음식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30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의 한 골목에 있는 '○○붕어빵' 노점에는 '이색 붕어빵'을 맛보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에서는 피자붕어빵, 팔+크림치즈 붕어빵, 고구마+크림치즈 붕어빵, 크림치즈 붕어빵 등 4개 종류의 붕어빵을 파는데 각각 개당 2000원 가격이다. 붕어빵 치고는 비싼데도, 손님들은 매서운 한파를 견뎌가며 20여분씩 줄을 서 가며 붕어빵을 사 갔다. 광주에 독특한 붕어빵이 있다는 소문은 SNS와 유튜브 등으로 퍼져 나가면서 젊은이들을 더욱 끌어모았다.

(사진) 이곳을 4일째 찾은 전한솔(26·서구 풍암동) 씨는 "하루 250개를 판다는데, 문 열고 3시간이면 동나버려 먹을 수가 없다"고 했다. 이곳뿐이 아니다. 광주시 수완지구에서는 김치·고구마 붕어빵도 등장했다. 광주시 동명동에서도 붕어빵의 인기로 시민들의 줄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한 붕어빵은 아니지만, 겨울철 대표 간식거리라는 점에서 추운 날씨에 동명동을 찾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이태원 참사 한 달 째를 맞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3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전남 영세 사업장 75% 노무관리 위반

### 절반이 근로조건 명시 안해

광주·전남 영세 사업장의 75%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사항의 절반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10인 이하)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실시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올해 4차례 진행됐다. 점검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209건

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가 134건, '임금체불'이 61건, '최저임금 미준수'가 7건 등이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총 118명이었고 체불임금은 6000여만원에 달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 사항은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임금 지급방법 등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업주가 세세한 부분까지 미처 알지 못한 점이 원인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천홍희 기자 strong@

# 5·18 피해자 절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호소

### 2명 중 1명 경제활동 안고 임시·일용 비율 높아 소득 수준도 보훈유공자의 75% 수준에 그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2명 중 1명은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소득도 보훈유공자의 75% 수준인 연평균 1821만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5·18피해자의 47.1%가 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적 피해의 유형은 타박상(67.6%), 골절상(42.1%), 자상(17.8%), 총상(11.7%), 성폭력(0.3%) 등의 순이었고, 가장 심각하게 겪은 문제는 정신적 고통(56.4%)과 신체부상 및 질병 후유증(54.0%)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1%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13.7%)이 높아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58.5%)과 나이(33.6%)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주거형태는 56.2%가 자가 소유이고, 공공임대주택(14%), 월세(14%), 전세(8.8%)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본인 소득의 경우 연평균 1821만원이었고, 연평균 가구소득은 2851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는 보훈유공자 소득의 75% 수준이다.

이번 조사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5·18피해자 가운데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2477명 중 응답자 2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신체적·심리적 피해 현황 및 사회적·경제적 실태 등이었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이번 조사결과와 5·18 관련단체와의 공청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법적 지원(보훈연금급 신설 등) ▲복지 지원(보훈서비스 인지도 제고 등) ▲의료 지원(5·18 민주유공자 위탁병원 확대 등) ▲심리 지원(개인 심리치유와 사회적 치유방안 구분해 트라우마 치유서비스 확대 등) 등 4가지로 세분화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5·18피해자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실질적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5·18피해자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3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담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